

광주시 주민과의 대화 '소통방식 논란'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치구를 방문해 주민과 대화를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사가 미리 준비된 질문·답변에 따라 진행되며다 참석자 대부분이 직능단체 관계자로 채워지고 시정에 대한 자화자찬이 난무했다.

신년 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75분이 넘도록 기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하며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비교하면 이 시장의 대화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연출된 행사였다

이 시장은 15일 오전 10시35분께 광산구청 대화의실에서 '자치구 순방, 광산구민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지난달 29일 동구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대화다.

행사는 광산구청장 환영사, 시장 인사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영상 상영, 민선 7기 시청 방향 설명, 주민과 대화, 광주형일자리 환영 결의문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 목표·가치(혁신·소통·청렴)와 10대 시책을 의욕적으로 설명하며, 자화자찬성 시청 성과에도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지난 7개월 간 시청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켰다"며 광주형일자리·도시철도 2호선 건립 확정 등 광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식전 행사가 지연된 탓도 있지만, 시청 설명이 계획보다 10분가량 길어지면서 주민과 대화 시간은 줄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주민과 대화는 오전 11시36분께 시작돼 2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시간도 짧았지만 대화 형식·내용이 각본대로 진행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각 동주민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주민자치위·통장단 중심의 건의사항 20여 건을 취합한 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시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주민과 대화 참석자는 직능단체 관계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준비된 건의사항(농촌지역 CCTV 설치, 송산교 보강 공사, 신용보증재단 송정지점 신설, 청소년 차고부지 마련, 풍영정길 보도설치 등)이 차례로 나왔다.

이 시장은 미리 준비된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질문에 답했다.

심지어 광산구가 작성한 '대화 시나리오'와 '주요 대화 내용'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질문이 이어졌고,

광산구서 주민 의견 들었지만 준비된 질문·답변 참석자 대부분 직능단체 관계자...형식적 대화 실망 수영대회 전신 마스크트 쓴 공무원 과한 의견 지적

마이크 전달이 잘못되면서 자료에 없는 질문(자치구간 경계조정 입장 견해)이 나오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각본대로 진행되다 보니 추가 질문의도 1건(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그쳤다. "양해해달라. 추가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입장뿐이었다.

공무원들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크트(수리·담이) 탈을 쓴 채 행사의 처음과 끝을 함께해 "과한 의견"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신을 감싼 탈을 쓰고 기념 촬영까지 마친 공무원들은 힘든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행사 도중 참가자 일부는 틀에 박힌 행사에 불만을

토로하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질문을 정하지 않고 불분한 질문까지 답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시장은 시청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각본대로 연출한 형식적인 자리였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기초의원은 "이 같은 일방통행식 대화와 건의사항 전달은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정책 주제를 두고 집중적인 대화를 하려면, 퇴근시간 이후 제대로 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주민도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느껴진다"며 "행사에서 이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러스 진

구 신청을 요청하며 소통을 운운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농촌지역 CCTV 설치 요구에 "설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연초 광주지역에 CCTV를 110대 이상 늘리겠다. 그동안(설치)소홀했던 농촌지역에도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차고부지 마련·풍영정길 보도 설치 등 다른 요구사항에도 "광산구와 협의해 주민 편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이 동구청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했을 때는 광산구 행사보다 다양한 질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21일, 남구는 25일, 북구는 27일로 예정됐다.

서은홍 기자



따뜻한 햇볕 아래 기장미역 건조 철기상 '우수'를 이틀 앞둔 17일 부산 기장군 축성리 두호항 물량장에서 어민들이 갖 수확한 기장미역을 따뜻한 햇볕에 말리기 위해 건조대에 널고 있다.

광주시 환경단속반, 세륜·세차폐수 무단배출 공장 적발

광산구 시멘트제품 제조업체

광주시는 광산구 소재 시멘트제품 제조업체인 S공장이 세륜·세차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S공장은 제품 수송차량 세륜·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1차 처리 후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해야

하지만 공장 밖 우수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광주시 환경단속반에 적발됐다.

단속반은 지난해 11월 말 황룡강 주변에서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황룡강에 방류하다 적발된 Y업체가 행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생태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법 위반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각 사업장에서 환경법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런던 마르크스 무덤에 붉은 페인트 낙서

자본론을 쓰고 공산당선언을 발표해 공산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 사상가 칼 마르크스의 무덤 앞에 붉은 기법비에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쓰여졌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에 있는 마르크스의 무덤은 2주 새 2번이나 훼손되는 공격을 받았다.

하이게이트 묘지에 있는 마르크스의 조각상에 '증오의 독트린' 등의 글귀가 붉은 페인트로 쓰여졌다.

마르크스의 무덤은 지난 4일에도 공격을 받았다. 마르크스의 이름이 새겨진 대리석판은 여러 차례 파손됐었다.

하이게이트 묘지측은 트위터에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쓰여진 대리석판의 사진을 게시했다. 묘지 측은 마르크스 무덤에 대한 공격을 어리석고 분별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마르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이런 공격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크스는 1849년 런던으로 이주해 1883년 3월14일 64세로 사망할 때까지 런던에 거주했다.

영국 공산당은 지난 1956년 마르크스의 무덤 옆에 3.7m 높이의 화강암 기법비와 함께 마르크스의 흉상을 세웠다.

케냐서 단속중 총격 후 달아난 밀렵꾼 추적

케냐 야생동물 보호국(KWS)은 그동안 추격작전을 펴온 밀렵단속반들과 총격전을 벌이다 공명 한 명이 죽자 달아난 밀렵꾼을 추적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KWS는 차보 서부국립공원에서 3명의 밀렵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국립공원을 순찰하던 중에 두 명의 밀렵용의자와 16일 조우했으며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밀렵꾼들이 먼저 순찰대에 총을 발사하면서 교전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용의자 한 명이 숨졌으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측되는 다른 한 명은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것이다.

야생동물보호국 순찰대는 이 교전 후 칼리바 소총 한정과 카트리지, 다른 3개의 자동소총 탄창과 전자기 한 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가까운 경찰이나 KWS사무실로 신고해달라고 성명을 통해 호소했다.

케냐는 엄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리카의 밀렵 중심지로 남아있다. 환경보호자들은 이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과 생태계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이 나라는 특히 수십년 동안 진행되어온 아프리카 야생동물의 감소가 인구증가와 농산물 재배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멕시코 관광지 칸쿤서 무장공격 5명 사망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 있는 한 클럽에 무장한 남성 4명이 침입해 5명을 죽이고 5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경찰이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칸쿤이 속한 키타나 로 주의 검찰 당국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 칸쿤 시내에 있는 클럽 '라 쿠가'였으며 이 도시의 해변 관광호텔 거리에서 6km 쯤 떨어진 곳이었다고 밝혔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4명의 용의자들은 긴 소총 한 정과 권총 3정으로 무장한 채 이 곳에 들어서서 총을 발사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최근 키타나 로 주와 칸쿤의 폭력범죄는 함께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 달 연방 경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키타나 로 주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피살된 사람은 774명이었다.

러시아서 대학건물 붕괴로 20명 매몰

16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국립대학의 건물이 붕괴돼 20여명이 매몰됐다.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P통신과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국립 '기술정보기계공학대학(ITMO)' 건물의 지붕과 5층, 4층이 무너졌다.

재난 당국은 사건 직후 "20여명이 잔해 속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건물 안에 있던 60여명은 빠르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주말 강의를 위해 출석한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